

믿음의 사람들 IX.

현실을 탁월하게 분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1. 전적인 믿음

(1) 귀신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만남

[마가복음 9:22-24]

22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2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24 그 아이 아버지는 큰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려서부터 귀신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다. 아이는 귀신들림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아이였다 (22절-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이런 자녀를 고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아이를 고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는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고백한다(18절).

[마가복음 9:18]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땀 뻘뻘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다. 예수를 만난 아버지의 마음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18절에 있는 아버지의 고백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생이니 능력은 더 있으시겠죠" 라는 마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 증거는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다.

[마가복음 9:22]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내 아들은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긴 중증환자입니다. 선생님이 능력있는 분이라는 소문은 들었으나, 당신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리고 올 때, 내 아들안에 있는 귀신이 요동을 쳐서 내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땅에 엎드려 구르는 것을 보아 선생님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속마음을 보여준다. "만약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가능하시면 고쳐 주십시오. 만약 고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2)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그리고 말씀 하신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아버지,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믿지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나는 네가 경험한 여러 치료자들과 다르다. 너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나에게 전적인 희망을 두지않는 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네 실패의 경험을 넘어서는 존재이다.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과 같다.

[마가복음 9:24] 그 아이 아버지는 큰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책망 후에 곧바로 아버지의 태도가 변한다. 24절의 말씀을 보니,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아버지는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고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경험했던 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안에 아이가 고쳐질 것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희망과 가능성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죽어있는 믿음을 깨우며 고백한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 주십시오’ (24절). 엄청난 고백이다. 사랑하는 자녀의 치유를 여전히 원하고 소문난 치유자를 쫓아 다니지만, 사실 자신 내면에는 치유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도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2. 희망과 가능성이 사라 질 때

(1) 기대치가 좌절된 후의 상황 - 실패가 주는 데미지

고통이 길어지거나 반복이 되면 희망도 그만큼 소멸된다.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일에 대해 좌절을 겪은 후 맞이하는 상황은 쉽지 않다. 실패의 경험들이 다음의 상황을 맞이 할 때, 실제적인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패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만큼 기대와 가능성도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패가 또 반복될 때이다. 지속적인 실패는 결국 우리안에 ‘현실’ 을 두려워 하고,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2)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보지 않으셨다.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준 결과는 사실상 모든 면에서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자기 멋대로 살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까지 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온전한 인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쁨의 존재’ 였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의 삶은 모든 면에서 실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실패자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폐기처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내가 만든 어떤 제품이 더 이상 쓸모없는 실패작이라고 여길 때, 그 제품은 당연히 폐기처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다시 회복 시키시고, 또 회복 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어 결국은 ‘영원한 회복’ 에 이르게 한다.

인간은 매번 하나님을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믿음의 본질’ 이 무엇인지 접근해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경험에 기초하는 신념적 믿음이 아닌, 영적인 영역에서의 본질적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3)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먼저 보는 믿음의 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한 번도 실패한 세상으로 바라본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신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보신다. 공허함 속에서도 기쁨을 보신다. 불가능한 상황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현실을 분석' 하는 눈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현실 넘어서의 일' 을 바라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긍정적으시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희망적으시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 으로 이 땅을 먼저 보는 것을 말한다. 부족한 제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보지 않으셨다. 여리고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으셨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 을 보셨다. 이것의 정점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 을 물으셨다. 그리고 '믿음' 을 요구하셨다.

3. 야곱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창세기 32:28]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야곱의 일생을 잘 알고있을 것이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연속이다. 야곱의 삶의 정점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기는 장면이다. 천사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 라고 말한다.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천사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해 주신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인생에는 문제가 많다.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이다.

이제 우리도 어떤 상황속에서도 믿음의 본질대로 움직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 가능성과 희망의 말 속에서 현실을 분석하는 비전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본질적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이제 실제적인 믿음의 사고로 모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자.